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5년 5월 6일(수)

【 미국 경제 동향 】

- 1) 3월 무역적자, 6년 만에 최대
- 2) 미국, 저금리 정책 세계 경제 부정적

【 해외 경제 동향 】

- 1) 중국 정부, 타국 통화절하 수출 경쟁력 위협
- 2) 중국, 해외금융사 채권투자 추가 허용

【 산업·시장 동향 】

- 1) 유럽연합, 온라인 기업 상대로 불공정경쟁 수사 착수
- 2) '웨어러블'에 밀린 포드, 심장마비 감지 좌석 개발 중단

【 미국 경제 동향 】

1) 3월 무역적자, 6년 만에 최대

- 지난 5일 미 상무부는 3월 무역 적자가 514억달러로 집계, 전월 대비 43.1%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액수이며 전문가 예상치는 410억~440억달러였음
- 전문가들은 이를 무역 적체 요인이었던 서부 항만의 파업이 풀리며 3월 수입 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수입액은 2월의 2221억달러에서 3월 2392억달러로 급증한 반면 수출액은 1862억달러에서 1878억달러로 회복
- JP모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입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수출은 회복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
- 한편, 무역수지 발표로 이날 뉴욕증시는 하락 출발했으며 이는 0.2% 성장으로 나온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

2) 미국, 저금리 정책 세계 경제 부정적

- 지난 4일 빌게이츠는 버크셔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및 찰스 멩거 부회장과 함께 CNBC 방송에 출연해 저금리가 시장에 버블을 초래하며 이 같은 환경이 오래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이어 경제에 차질을 일으키는 자산거품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

- 게이츠가 내놓은 해결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등 세계적인 금융완화 흐름 속에서 연준이 홀로 금리를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미국이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용단을 촉구
- o 또한, 버핏 회장은 저금리가 특히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으며 돈을 쉽게 빌려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커졌고 주식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멩거 부회장도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해 돈을 찍어내고 버리는 과정에 회의가 들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통화정책의 속임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 o 한편, 같은 날 연준의 주요 관계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의결권을 가진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 준비은행 총재는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의 1·4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표

【 해외 경제 동향 】

1) 중국 정부, 타국 통화절하 수출 경쟁력 위협

- o 지난 5일 중국 상무부는 몇몇 국가들이 수출 증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국 환율을 사용한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급등,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올려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또한, 상무부는 몇몇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유지, 특정 자유무역협정(FTA)의 회원국이 아니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
 - 상무부는 작년 10월말 G20 국가들이 도입한 무역 규제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고 지적했으며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조치들 가운데 4분의 1은 중국 혼자 받고 있다고 주장
- 한편, 작년 위안화 가치는 주요 통화들 대비 6.4% 증가, 올해 1분기 4.2% 증가한 가운데 중국 무역은 불안정한 해외 수요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여파로 감소하는 추세

2) 중국, 해외금융사 채권투자 추가 허용

- 지난 6일 제일재경일보는 인민은행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인 기관투자자(ROFII) 등 32개 해외 금융기관이 중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
 -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거래하는 채권시장은 종류가 많지 않고 거래량도 적은 편으로 해외 금융기관을 만족시키기 힘든 상황으로 이를 통해 HSBC와 모건스탠리, BNP 파리바, ING뱅크 같은 해외 금융기관들이 국채나 정책성 은행이 발행한 채권 등을 대량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제일재경일보는 해외 자금이 중국 증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중국 채권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으로 현재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금리 하락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번 채권 투자 허용이 보완할 것으로 분석

- 한편, 인민은행은 2014년 기준으로 총 211개의 해외 중앙은행과 인민폐 정산 은행, 해외 보험사 등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발표

【 산업·시장 동향 】

1) 유럽연합, 온라인 기업 상대로 불공정경쟁 수사 착수

- 지난 6일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이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 발표
 - 조사대상에는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SNS 업체 등이 포함되며 이미 조사 중인 구글에 이어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추가될 예정
-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하며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국가 간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유럽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 밝힘
 - 이를 위해 EU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진 아마존, 이베이 등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피해를 입혔는지 등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
- 한편,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가 전자제품, 의류, 디지털 콘텐츠 등 전자상거래의 주요 품목에 집중될 것이라 밝힘

2) ‘웨어러블’에 밀린 포드, 심장마비 감지 좌석 개발 중단

- 지난 4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웨어러블 기기에 밀려 심장마비 위험을 감지하는 운전석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고 보도
 - 스마트 시계 등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이미 더 저렴한 비용과 더 정확한 기술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다른 쪽으로 전환
- FT는 포드의 프로젝트 중단이 인터넷 등 통신망으로 자동차가 연결되는 스마트 자동차인 ‘커넥티드카’ 시대를 맞은 자동차업체가 얼마나 빨리 혁신에 나서야 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
- 한편, 기술 컨설팅업체인 가트너의 자동차 부문 책임자인 킬로 코슬로우스키는 포드의 사례가 신기술을 실험하는 데 보수적인 자동차업체에 선례가 될 수 있고 일부 투자의 실패 비용은 단순한 장비 제조업체로 전략하거나 다른 산업 주도업체에 휘둘리게 될 때 감당해야 할 대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고 강조